兩耳는 길다。法衣는 右肩褊袒이며 衣文은 左肩에서 平行斜線으로 흐르고 있어 特異한 表現을 보이고 있다。背後도 亦是 같은 手法이며 左肩에서 左手에 걸친 衣端이 보인다。左手는 施無畏印、右手는 與願印으로 通印을 結하고 法衣밑으로 裙衣가 보인다。臺座는 圓形으로 八葉單瓣蓮花를 나타냈다。

蓮瓣의 樣式과 衣紋의 特異한 表現은 全體의 均衡과 아울러 優雅하며 安全된 感을 준다。아마도 新羅統一에서 過히 멀지 않은 時期의 所作으로 생각된다。

全高 一一*cm* 臺座高 二·三*cm*

東萊出土의 李朝小鐘

黃 壽 永

數年前 東大 禹貞相 敎授로부터 梵鐘 一口가 出土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調査를 期하여 오던 바 昨年 八月 十一日 慶州博物館長 秦弘燮氏와 같이 現地를 찾아서 調査할 수 있었다。



東海南部線 月內驛에서 멀지 않은 妙觀音寺라는 新寺(東萊郡 長安面 林浪里)에 保存되어 있는 바 解放後에 境內에서 工事中 出土되었다고 할 뿐 그 經緯는 未詳이다。總高 三五*cm*의 小鐘인 바 圓筒形 鐘體는 平薄하고 各部의 彫飾은 豊麗雅潤하며 그 樣式은 李朝初期의 代表的 銅鐘인 海印寺所藏 弘治四年(成宗二二年、一四九一 A·D·)在銘銅鐘과 거의 同一하나 다만 大小의 差가 뚜렷할 뿐이다。圓隆의 頂上部에는 甬筒이 없고 雙頭單身 四足의 龍鈕가 있을 뿐이며 上帶에는 蓮花文이 周回하였고 乳廓은 四處에 配置되어 各 九乳인데 花瓣形이며、乳廓帶에는 唐草紋이 둘러있다。다음에 乳廓間地마다 合掌立形의 菩薩像이 各 一軀씩 配置되었으며 그 밑에 中帶가 있어 위로부터 寶相花蔓과 三雲龍紋과 波濤紋이 있으며 下帶에는 八卦가 配置되었다。

이같은 配置樣式은 高麗末에 鑄造된 開城 演福寺鐘(國寶 第一一號)을 비롯하여 李朝初의 서울 興天寺鐘(德壽宮)等에서 그 系列을 찾을 수 있겠으나 前擧한 海印寺銅鐘에서 先行的인 規範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形態는 雅淡하고 彫法은 纖細하며 鑄法이 優秀함에서 비록 그 樣式은 韓國鐘의 通型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韓國鐘의 優秀한 傳統을 지닌 李朝中期以前의 佳品이라고 할 것이다。

續金埴의 牛圖

孟 仁 在

筆者는 지난번 退村 金埴이 그의 소그림에서 對象에 대하여 主知的이었고 그 墨色의 濃淡은 對象의 陰影의 表現이 아니라 量感의 把握이었다는 點을 간단히 指摘하고 그의 方法에 近代的 感覺의 前兆가 潛在하고 있다는 것으로 끝맺었으나 그 繪畫的인 周邊과 背景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를 느껴 그의 그림의 어느 部分과 感覺·內容이 近似해 보이는 二、三點의 다른 作品들을 들어 比較해 보기로 한다。

養松堂 金禔의 夏山暮雨圖(絹本墨畵·八寸 八分×七寸 二分·德壽宮美術館藏)의 山上에 보이는 松林의 混點은 劉復烈氏 藏인 臥牛圖(사진 1)에서 怪石의 背景이 된 混點과 매우 비슷하다。前者는 雨景이라 하더라